

복수 서버를 갖는 대기행렬시스템 분석에 대한 2단계 근사법

이호현*, 허선**

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

*e-mail: blueice@metropol.hanyang.ac.kr

**e-mail: hursun@email.hanyang.ac.kr

A Two-step Approximation for Multi-server Queueing Systems

Ho Hyun Lee, Sun Hur
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
Hanyang University

요 약

본 연구에서는 변환을 취하지 않고 $M/G/c$ 시스템의 고객수분포를 구하는 방법으로 2단계 분석을 제시한다. I 단계에서는 마코비안 서비스를 따르는 전통적인 고객수분포로부터 출발하여 여기에 새롭게 정의된 모수를 도입해서 근사하여 고객수가 c 명일 때까지의 분포를 구한다. II 단계에서는 선수 작업으로 하나의 대기행렬을 각각의 고객의 대기공간으로 구별하여 나눈 후에 현재 시스템내의 고객수에 따라 고객의 도착시점에서 바라 본 대기공간의 부하 유형별로 나누고, 해당 대기공간에 부하를 주는 정도에 따라 정리된 식으로부터 축차적으로 고객수분포를 유도한다.

유도된 고객수분포로부터 평균 시스템 체재시간과 평균 대기시간 등을 구하고 이를 시물레이션과 비교하여, 본 근사법의 유용성을 논의한다.

1. 서론

복수 서버를 갖는 $M/G/c$ 대기행렬시스템의 안정상태에서의 대기고객수 분석을 함에 있어서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. 서버가 한 명일 경우는 내재 마코프체인을 이용한 방법, 부가변수법, 여러 형태의 근사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나 서버가 여러 명일 경우는 연구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, 정확한 해를 내는 해법 또한 알려지지 않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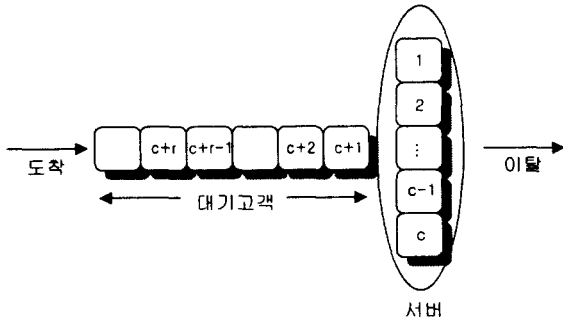
본 논문에서는 변환을 취하지 않고 $M/G/c$ 시스템의 고객수분포를 구하는 방법으로 2단계 분석을 실시한다. I 단계에서는 마코비안 서비스를 따르는 모형에서의 고객수분포로부터 출발하여 여기에 새로이 정의된 모수를 도입하고 moment matching 방법과 Little의 식을 이용하여 모수를 구해낸 후, 근사하여 고객수가 c 명일 때까지의 분포를 구한다. II 단계에서는 선수 작

업으로 하나의 대기행렬을 각각의 고객의 대기공간으로 구별하여 나눈 후에 현재 시스템내의 고객수에 따라 고객의 도착시점에서 바라 본 대기공간의 부하 유형별로 나누고 해당 대기공간에 부하를 주는 정도에 따라 정리된 식과 잔여서비스시간의 적절한 계산식으로부터 축차적으로 고객수분포를 유도한다. 구해진 고객수분포를 가지고 평균시스템체재시간과 평균대기시간 등을 구한다.

2. 모형설명

고객의 도착은 도착률 λ 를 갖고 포아송과정으로 이루어지며, 각 서버의 서비스는 서비스율 μ , 평균서비스시간 $E[S]$ 의 일반분포를 따른다. 서버의 수는 c 명으로 각 서버는 동일하고 상호독립이며, 대기공간은 무한하고 안정상태조건 ($\lambda < c\mu$)를 만족하는 시스템이라고 하자. 또한 바쁜 서버의 잔여서비스시간은 다른 서버의 서비스

시간과 독립이라고 하자. 서비스 정책은 선입선출이다. $M/G/c$ 대기행렬시스템은 [그림 1]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.



[그림 1] $M/G/c$ 대기행렬시스템

3. I 단계 : 고객수 확률분포 (c 명 이하)

3.1 $M/M/c$ 시스템에서 $M/G/c$ 으로의 근사

고객수분포를 구하기 위하여 우선 $M/M/c$ 시스템의 고객수분포를 고려하여 근사의 초기치로 삼는다. $M/M/c$ 에서 안정상태에 시스템 내 고객수를 N 명이라 하고 $\Pr(N=n) = P_n(M)$ 으로 표기하면 식(1)과 같이 주어진다.

$$P_n(M) = \begin{cases} \frac{(\lambda/\mu)^n}{n!} P_0(M), & (0 \leq n \leq c-1) \\ C(c, c\rho)(1-\rho)\rho^{n-c}, & (n \geq c) \end{cases} \quad (1)$$

여기서 $\rho = \frac{\lambda}{c\mu}$, $C(c, c\rho) = \frac{(\lambda/\mu)^c}{c!} \frac{1}{1-\rho} P_0(M)$

이며, $P_0(M) = \left(\sum_{n=0}^{c-1} \frac{(\lambda/\mu)^n}{n!} + \frac{(\lambda/\mu)^c}{c!(1-\rho)} \right)^{-1}$ 이다.

식 (1)로부터 서비스시간이 일반분포를 따르는 $M/G/c$ 시스템의 분포를 근사시키기 위하여 임의의 모수 ν ($0 < \nu < 1$)를 도입하여 식(1)의 ρ 와 대치한다. 즉, $P_n(G)$ 를 $M/G/c$ 에서 시스템 내에 n 명 있을 확률이라고 하면,

$$P_n(G) = \begin{cases} \frac{(\lambda/\mu)^n}{n!} P_0(M), & (0 \leq n \leq c-1) \\ C(c, c\rho)(1-\nu)\nu^{n-c}, & (n \geq c) \end{cases} \quad (2)$$

와 같이 변형할 수 있다. 이제 모수 (ν)를 구하기 위하여 Little의 식과 moment matching 방법을 쓰자, M 은 $M/M/c$ 모형, G 는 $M/G/c$ 모형을 의미한다고 하면 $L(M) = \lambda E[W(M)]$, $L(G) = \lambda E[W(G)]$ 로부터 다음을 근사 시킬 수 있다.

$$\frac{\rho}{1-\rho} E[W(G)] \approx \frac{\nu}{1-\nu} E[W(M)] \quad (3)$$

를 얻고, $R \equiv \frac{E[W(G)]}{E[W(M)]}$ 로 나타내자. 그리고

$$\nu = \frac{\rho R}{1-\rho + \rho R} \quad (4)$$

를 구한다. 여기서 R 은 다음과 같은 근사를 취한다(Kimura[6]).

$$\lim_{\rho \rightarrow 0} R = c \cdot E[T^+] \cdot \frac{1}{E[S]} \quad (5)$$

$$\lim_{\rho \rightarrow 1} R = \frac{1+(c\nu)^2}{2} \quad (6)$$

단, $E[T^+] = \int_0^\infty (1-G_+(t))^c dt$, $t > 0$, $(c\nu)^2$ 은 변동계수의 제곱이다.

식 (5)는 light traffic의 경우이고 식 (6)는 heavy traffic의 경우인데 각 경우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. 그리고 light traffic의 경우에는

$$\begin{aligned} E[T^+] &= E[\min\{S_1^+, S_2^+, \dots, S_c^+\}] \\ &\approx \frac{[E(S) + 3E(S^+)]}{4c} \end{aligned} \quad (7)$$

의 근사(Wang and Wolff [3])와 4.2절의 $E[T_1^+]$ 를 사용한다. 식 (4)과 (7) 그리고 $R \equiv \frac{E[W(G)]}{E[W(M)]}$ 로부터 모수 ν 를 구한다.

4. II 단계 : 고객수 확률분포 (c 명 이상)

I 단계에서 구한 P_c 를 가지고 II 단계를 진행한다. 여기서는 대기장소(Queue)를 도착하는 고객의 관점에서 개별적인 고객이 차지하고 있는 대기공간으로 구별하여 나누어 생각한다. 예를 들어, 각 대기공간을 R_{c+r} ($r=1, 2, 3, \dots$)이라 하면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중인 고객이 한 명일 경우 그 고객의 대기 공간은 R_{c+1} , 두 명일 경우 두 번째 고객의 대기공간은 R_{c+2} 가 될 것이다.

현재 시스템 내에 있는 고객수에 따라 r 번째 대기공간 R_{c+r} 에 부과되는 부하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험고객의 도착 시점에서의 고객수에 따른 부하 유형을 구분한다.

▶ 시험고객의 도착 시점에서의 부하 유형

- $(c+r-2)$ 명 이하인 경우
 - R_{c+r} 에 부하를 주지 못한다.
- $(c+r-1)$ 명
 -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 중 잔여서비스시간이 가장 적게 남은 고객의 잔여서비스시

간 동안 R_{c+r} 에 부하를 준다.

- c) $(c+r)$ 명 이상
 - 현재 서비스를 받고있는 고객의 잔여서비스 시간과 새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서버의 서비스 시간 중에서 가장 적은 시간 동안 R_{c+r} 에 부하를 준다.

위의 유형들로부터 단위시간당 도착하는 고객들이 대기공간 R_{c+r} 에 주는 평균 부하량을 다음과 같이 구한다.

$$\lambda(P_0 + P_1 + \dots + P_{c+r-2}) \cdot 0 + \lambda P_{c+r-1} E[T_1^+] + \lambda(P_{c+r} + P_{c+r+1} + \dots) E[T_2^+] \quad (8)$$

여기서 $T_1^+ = \min\{S_1^+, S_2^+, \dots, S_c^+\}$ 는 서비스 중인 서버의 잔여서비스시간 중에서 최소인 것을 나타낸다. $T_2^+ = \min\{S, S_1^+, S_2^+, \dots, S_{c-1}^+\}$ 는 새로 setup되는 서버의 서비스시간과 나머지 서버의 잔여서비스시간 중에서 최소인 것을 의미한다. 단, S 는 서비스시간, S_k^+ 는 k 번째 서버의 잔여서비스시간이다 ($k=1, 2, \dots, c$).

4.1 시스템 방정식

앞에서 언급한대로 각 대기공간 R_{c+r} 에 ($r=1, 2, 3, \dots$) 가해지는 부하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r 번째 대기공간이 점유될 확률로 Q_{c+r} 을 정의한다.

$$\begin{aligned} Q_{c+1} &= P_{c+1} + P_{c+2} + P_{c+3} + \dots \\ &= \lambda P_c E[T_1^+] + \lambda Q_{c+1} E[T_2^+] \\ Q_{c+2} &= P_{c+2} + P_{c+3} + P_{c+4} + \dots \\ &= \lambda P_{c+1} E[T_1^+] + \lambda Q_{c+2} E[T_2^+] \\ &\vdots \\ Q_{c+r-1} &= P_{c+r-1} + P_{c+r} + P_{c+r+1} + \dots \\ &= \lambda P_{c+r-2} E[T_1^+] + \lambda Q_{c+r-1} E[T_2^+] \\ Q_{c+r} &= P_{c+r} + P_{c+r+1} + P_{c+r+2} + \dots \\ &= \lambda P_{c+r-1} E[T_1^+] + \lambda Q_{c+r} E[T_2^+] \\ Q_{c+r+1} &= P_{c+r+1} + P_{c+r+2} + P_{c+r+3} + \dots \\ &= \lambda P_{c+r} E[T_1^+] + \lambda Q_{c+r+1} E[T_2^+] \\ &\vdots \end{aligned}$$

$P_{c+i} = Q_{c+i} - Q_{c+i+1}$ 가 되므로 위의 관계식 Q_{c+r} ($r > 1$)을 정리하여 축차적으로 풀어 아래와 같은 식을 얻는다.

$$\begin{aligned} Q_{c+1} &= \lambda P_c E[T_1^+] + \lambda Q_{c+1} E[T_2^+] \\ \therefore Q_{c+1} &= \frac{\lambda}{1 - \lambda E[T_2^+]} E[T_1^+] P_c \end{aligned}$$

$$\begin{aligned} Q_{c+2} &= \lambda P_{c+1} E[T_1^+] + \lambda Q_{c+2} E[T_2^+] \\ \therefore Q_{c+2} &= \frac{\lambda}{1 - \lambda E[T_2^+]} E[T_1^+] P_{c+1} \\ &\vdots \\ Q_{c+r-1} &= \lambda P_{c+r-2} E[T_1^+] + \lambda Q_{c+r-2} E[T_2^+] \\ \therefore Q_{c+r-1} &= \frac{\lambda}{1 - \lambda E[T_2^+]} E[T_1^+] P_{c+r-2} \end{aligned}$$

$$\begin{aligned} Q_{c+r} &= \lambda P_{c+r-1} E[T_1^+] + \lambda Q_{c+r} E[T_2^+] \\ \therefore Q_{c+r} &= \frac{\lambda}{1 - \lambda E[T_2^+]} E[T_1^+] P_{c+r-1} \\ Q_{c+r+1} &= \lambda P_{c+r} E[T_1^+] + \lambda Q_{c+r+1} E[T_2^+] \\ \therefore Q_{c+r+1} &= \frac{\lambda}{1 - \lambda E[T_2^+]} E[T_1^+] P_{c+r} \end{aligned}$$

그리고

$$\begin{aligned} P_{c+1} &= Q_{c+1} - Q_{c+2} \\ &= \frac{\lambda E[T_1^+]}{1 - \lambda E[T_2^+] + \lambda E[T_1^+]} P_c \end{aligned} \quad (9)$$

$$\begin{aligned} P_{c+2} &= Q_{c+2} - Q_{c+3} \\ &= \left(\frac{\lambda E[T_1^+]}{1 - \lambda E[T_2^+] + \lambda E[T_1^+]} \right)^2 \cdot P_c \end{aligned} \quad (10)$$

$$\begin{aligned} P_{c+r-1} &= Q_{c+r-1} - Q_{c+r} \\ &= \left(\frac{\lambda E[T_1^+]}{1 - \lambda E[T_2^+] + \lambda E[T_1^+]} \right)^{r-1} P_c \end{aligned} \quad (11)$$

$$\begin{aligned} P_{c+r} &= Q_{c+r} - Q_{c+r+1} \\ &= \left(\frac{\lambda E[T_1^+]}{1 - \lambda E[T_2^+] + \lambda E[T_1^+]} \right)^r \cdot P_c \end{aligned} \quad (12)$$

$$\begin{aligned} P_{c+r+1} &= Q_{c+r+1} - Q_{c+r+2} \\ &= \left(\frac{\lambda E[T_1^+]}{1 - \lambda E[T_2^+] + \lambda E[T_1^+]} \right)^r P_c \end{aligned} \quad (13)$$

각 상태의 확률들은 두 가지 유형의 서비스시간 평균 $E[T_1^+]$ 와 $E[T_2^+]$, 고객도착율, P_c 를 포함하고 있는데 다음절에서 $E[T_1^+]$ 와 $E[T_2^+]$ 를 구하기로 한다.

4.2 $E[T_1^+]$ 와 $E[T_2^+]$ 의 계산

G_+ 를 잔여서비스시간의 분포라고 하자. 그러면,

$$G_+(t) = \frac{1}{E[S]} \int_0^t (1 - G(x)) dx \quad (14)$$

의 관계식이 성립하고 $\int t dG_+(t) = \frac{E[S^2]}{2E[S]}$ 이다.

[정리 1]

S_k^+ ($k=1, 2, \dots, c$)를 서버의 잔여서비스시간을

나타내며 분포 G_+ 를 따르는 독립인 확률변수라 하고 서비스시간 S 는 분포 G 를 따르며 S_k^- 와 독립인 확률변수라 하자. 그러면 다음을 만족한다.

$$E[(S - \text{the } n^{\text{th}} \text{ smallest of } (S_1^+, S_2^+, \dots, S_c^+))^+] = E[S] \frac{c+1-n}{c+1}, \quad \text{단, } 1 \leq n \leq c-1 \quad (15)$$

증명)

식 (14)로부터 $E[S]G_+(t) = \int_0^t (1-G(x))dx$ 가 되고 t 에 관해 미분하면

$$E[S]g_+(t) = (1-G(t)) \text{이다.}$$

$E[(S - \text{the } n^{\text{th}} \text{ smallest of } (S_1^+, S_2^+, \dots, S_c^+))^+]$ 는 T_2^+ 에서 정의했던 바와 같이

$E[S] - E[\min\{S, n^{\text{th}} \text{ smallest of } (S_1^+, S_2^+, \dots, S_c^+)\}]$ 이다. 오른쪽의 식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.

$$\begin{aligned} & E[\min\{S, n^{\text{th}} \text{ smallest of } (S_1^+, S_2^+, \dots, S_c^+)\}] \\ &= \int_0^\infty \Pr(S > t) \cdot \Pr\{n^{\text{th}} \text{ smallest of } (S_1^+, S_2^+, \dots, S_c^+) > t\} dt \\ &= \int_0^\infty (1-G(t)) \cdot \sum_{i=0}^{n-1} \binom{c}{i} G_+^i(t) (1-G_+(t))^{c-i} dt \\ &= \int_0^\infty E[S] \cdot \sum_{i=0}^{n-1} \binom{c}{i} G_+^i(t) (1-G_+(t))^{c-i} g_+(t) dt \\ &= E[S] \sum_{i=0}^{n-1} \binom{c}{i} \int_0^1 z^i(t) (1-z)^{c-i} dz \\ &= E[S] \sum_{i=0}^{n-1} \binom{c}{i} \frac{i!(c-i)!}{(c+1)!} \\ &= E[S] \frac{n}{c+1} \quad (16) \end{aligned}$$

$G_+(t) = z$ 로 치환하고

($0 < t < \infty \rightarrow 0 < G_+(t) = z < 1$) 베타분포의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. 그리고 일반적으로 S_k^+ 들은 독립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근사의 편의상 독립이라고 하였다. □

4.2.1. $E[T_1^+]$ 의 계산

$$T_1^+ = (S - \max(S_1^-, S_2^-, \dots, S_c^-))^+ \text{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서비스시간에서 가장 큰 경과시간을 뺀 것이며 가장 작은 잔여서비스시간으로 볼 수 있고, 잔여서비스시간과 경과서비스시간의 분포는 확률적으로 동일하므로 잔여서비스시간의 경우를 적용한 위의 정리로부터 } T_1^+ \text{의 기대값을 구하면 아래와 같다.}$$

$$E[T_1^+] = \frac{1}{c+1} E[S] \quad (17)$$

4.2.2. $E[T_2^+]$ 의 계산

$$T_2^+ = \min\{S, S_1^+, S_2^+, \dots, S_{c-1}^+\} \text{로 표현} \\ = \min\{S, \min(S_1^+, S_2^+, \dots, S_{c-1}^+)\}$$

할 수 있고, 서비스를 새로 시작한 고객의 서비스시간과 나머지 $c-1$ 명의 고객의 잔여서비스시간 중에서 가장 작은 시간으로 볼 수 있다. T_2^+ 의 기대값은 위의 정리의 증명으로부터 $n=1$ 로 놓고 정리하면

$$E[T_2^+] = \frac{1}{c} E[S] \quad (18)$$

가 된다.

4.3 M/G/c 시스템의 변환을 취하지 않은 형태의 고객수분포

4.1절의 시스템 방정식에 I 단계의 3.2절에서 유도한 P_c 와 4.2절에서 구한 $E[T_1^+]$ 와 $E[T_2^+]$ 를 대입하면 파라미터 ν 와 서비스시간의 평균 $E[S]$ 의 항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.

$$\begin{aligned} P_{c+1} &= \frac{(c+1)\lambda E[S]}{c(c+1) - \lambda E[S]} \cdot P_c \\ P_{c+2} &= \left\{ \frac{(c+1)\lambda E[S]}{c(c+1) - \lambda E[S]} \right\}^2 \cdot P_c \\ &\vdots \\ P_{c+r} &= \left\{ \frac{(c+1)\lambda E[S]}{c(c+1) - \lambda E[S]} \right\}^r \cdot P_c \\ P_{c+r+1} &= \left\{ \frac{(c+1)\lambda E[S]}{c(c+1) - \lambda E[S]} \right\}^{r+1} \cdot P_c \\ &\vdots \end{aligned} \quad (19)$$

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

$$P_c = \frac{\frac{(\lambda/\mu)^c}{c!} \frac{1-\nu}{1-\rho}}{\left(\sum_{n=0}^{c-1} \frac{(\lambda/\mu)^n}{n!} + \frac{(\lambda/\mu)^c}{c!(1-\rho)} \right)} \quad (20)$$

이다.

5. 평균시스템체재시간, 평균대기시간

식 (19)와 (20)으로부터 평균대기고객수는

$$L_q = \sum_{n=c}^{\infty} (n-c) P_n \quad (21)$$

와 같음을 알 수 있고, 평균대기시간은

$$\begin{aligned} E[W(G)] &= \frac{L_q}{\lambda} \\ &= \sum_{n=c}^{\infty} (n-c) P_n(G) \\ &= \sum_{n=c}^{\infty} (n-c) C(c, \rho) (1-\nu) \nu^{n-c} \quad (22) \\ &= C(c, \rho) \frac{\nu}{(1-\nu)^2} \end{aligned}$$

이다. 그러면 시스템 내의 평균고객수는

$$L = L_q + \lambda E[S]$$

이고 평균대기시간은

$$W = \frac{L_q + \lambda E[S]}{\lambda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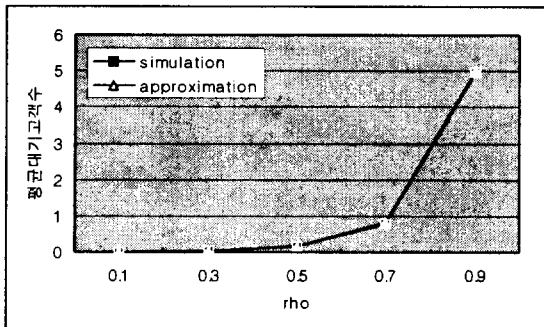
이다.

6. 실험결과

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시뮬레이션과 비교 검토하였다.

서버의 수는 3명이고, 서비스분포는 계차-3의 Erlang분포이며 ρ 의 값을 [그림 2]와 같이 변화시켜 가면서 Arena 3.5로 실험하였다. 시뮬레이션 시간은 10^7 으로 하였으며 warm-up period는 2×10^6 , 반복수는 50회로 두었다.

[그림 2]는 traffic을 변화시켜가면서,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과 시뮬레이션과의 차이점을 살펴본 것으로 근사법과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. traffic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거나 큰 경우에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, 이는 잔여서비스시간을 상호독립으로 보고 근사하였기 때문이다.



[그림 2. M/E₃/3 시스템의 평균대기고객수]

7. 결론

M/G/c 시스템은 이론적으로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c가 크면 경계값의 결정이 실제적이지 않다.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변환과정을 택하지 않고 2단계 근사법을 통하여 M/G/c 대기행렬시스템을 분석하였다. I 단계에서는 친숙한 모형인 M/M/c 모형에서 출발하여 M/G/c와 M/M/c의 비율과 ρ 로 표현되는 모수를 갖는 시스템으로 분석하였고, II 단계는 대기공간을 개별적인 고객이 점유하는 장소로 나누고 여기에 도착 시점에서의 부하유형별로 분석하였다. 계산과정 쉽고 간단하며 특히, 서비스시간의 1차 모멘트만으로도 고객수분포를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.

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시뮬레이션과 비교 검토한 결과 극도의 heavy/light traffic 이 아닌 경우와 마코비안 서비스의 경우에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.

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다중접속을 하는 통신네트워크시스템의 성능분석, 재고시스템에 적용되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.

8. 추후 연구과제

- ▶ 다양한 데이터와 환경에서의 실험이 필요하다.
- ▶ 잔여서비스시간들과 서비스시간의 독립성 여부 판정과 모두 독립으로 두었을 때의 오차
- ▶ 경과서비스시간과 잔여서비스시간의 합(재귀시간)이 서비스시간으로의 근사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.
- ▶ busy/idle period, heavy/light traffic 특성 등을 정리한다.
- ▶ 주어진 시간 내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스템을 떠나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 (통신서비스와, 재고시스템에서의 활용 방안)

References

- [1] 윤봉규, 김남기, 채경철, 1999, "Little's 법칙의 미시적 활용 사례",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ngineers, vol. 25, no. 1, pp. 125-129.
- [2] 이호우, 1998, "대기행렬 이론", 시그마프레스.
- [3] Chia-Li Wang and Ronald W. Wolff, 1998, "The M/G/c queue in light traffic", Queueing Systems, vol. 29, no. 17-34, pp. 17-34.
- [4] Jerry Banks, "Handbook of Simulation", 1998, Engineering & Management Press,
- [5] Nam Kyoo Boots, Henk Tijms, 1999, "A Multiserver Queueing System with Impatient Customers", Management Sci., vol. 45, no. 3, pp. 444-448.
- [6] Toshikazu Kimura, 1996, "A Transform-free Approximation for the Finite Capacity M/G/s Queue", Operations Research, vol. 44, no. 6, pp. 984-988.
- [7] W. D. Kelton, R. P. Sadowski, D. A. Sadowski, 1998, "Simulation with Arena", WCB/McGraw-Hill.